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동지 회충상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반행소	931 노스킹 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리 전 근	President	Chung Kun Lee
주필	김 창 율	Editor	Donald C.W. Kim
전화	845-0849	Telephone	8450849
발행료	1776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11월 25일	Issue No.	1776
	금요일	Date	Jan. 2, 1970: Fri.

닉슨대통령 예산 결정을 종료 늦어지는 년두교서

(사이크라벤트 1월3일 밤, 에이피) 닉슨대통령은 3일, 사이크라벤트에서 예산에 대한 주요 결정이 다 종료된 것을 명백히 하였다. 금일 최후의 주에 71년도 1천억 불의 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의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신형식의 과세를 권고할 때는 22일의 년두교서가 말한 것이다.

미국회는 19일 제2회기가 재개되게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1월 상순에 내는 년두일반교서는 예산보다 늦게 되었다. 닉슨정권은 년두교서, 예산교서, 경제보고의 소위 3대교서의 작성을 급히 하고 있는데, 예산면에서는 년말의 국회에서 대폭으로 군사비가 삭감된 일도 있어서, 이권면에서 신예산에 어느정도 국방비가 삭감될지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내의 풍기는 국방비를 감소하고, 인플레이션 대책, 빈곤 제외 등 내정면에 일을 만기하여야 할 다른 의견이 많이 강하고, 이점에서 닉슨정권의 예산편성은 곤란하다.

사회보장금 자동적으로 1% 퍼센트 증가 별도 신청의 필요 없다

미국의회의 제정에 의해서 사회보장금이 1월부터 15% 인상되게 되었는데, 보장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사회보장당국은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월부터 각자가 받는 보장금은 15% 증가된다. 이것에 대해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증액된 최초의 수표(돈) 3월분은 4월3일에 도착할 것이다. 1월분, 2월분의 수표(증가분)는 4월20일경에 올 것이다. 현재 미국내에서 사회보장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총인구의 약 8분의 1로, 12월의 보장금 총액은 약 22억 불이었다. 15% 증액 후에는 25억 불이 될 것이다.

비에트남 정책은 옳다 애그뉴부대통령연설

(사이공 1월2일 밤, 에이피) 애그뉴부대통령은 24시간의 비에트남 체재를 마치고 극부에 함해 출박하였다. 동부대통령은 출박해 있어서 "70년에는 우리들의 공동의 목표인 평화에 더 가까이 갈 것이라는 실감이 있다. 추대준비를 위해서, 비에트남 문제, 미당사자와의 의담에 의해서, 나는 우리의 정책이 현명하였다고 확신하였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제 1 편)



국회의 승인 없이는 아시아에 지상부대 파견치 않는다. 애그뉴부대통령 성명

(앵무 1월5일 밤, 에이피) 아시아 11개국을 역방중인 애그뉴부대통령은 3일, 대북으로부터 앵무 으로 향하였다. 부대통령은 공군제2번기상에서 동행기자단에대해서 "닉슨정권은 12월에 국회에서 재결된 라오스, 라이에의 미지상부대의 파병억제를 따를것이다. 국회의 승인을받지 않는한, 어느 파격적인 조건적, 실질적행위가 발생하지 않는한, 아시아제국에 전 부대는 파병치 않는다" 라고 말하였다. 또 부대통령은 아시아 각국에있어서 작년 7월 닉슨대통령이 발표한 소위 "광. 닷트린" (광에서의 원측) 이 명목이 무엇을 의미하고있는가에대해서 혼란을 불것을 강력히 시사하 고, 다음파같이 말하였다. "여태까지에 회담안 아시아각국수되는, 적대세력예의한 국가전부이니 침투보다도 전쟁행위로서의 "전면적인, 올림없는 공격" 을 우려하고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있고 미국이 계속 주동한다는 새로운 보증을 구하고있다.

이스라엘기가 레바논 영을 공격

(1월2일 밤, 에이타) 종합) 레바논군대변인은 "2일 이스라엘기 8기가 레바논남부의 하스바야촌을 공격, 시민 4명이 부상하였다" 라고 발표하였다. 전해지는바에의하면, 1일 이스라엘국경의 혼란 2개소가 애람.유적대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측은 이것을 레바논영으로부터 행하였다고하 고, 보복을 성명하고있었다.

스카루노 복귀설을 부정

(자칼라 1월3일 밤, 에이피) 인도네시아정보성 부조암조 공군소장은 3일 스카루노전대통령의 전 권복귀설을 부정하는동시에, 전달에 체포된 육군 장관 2명은 스카루노 복귀의 음모적 후과는 아무 관계가없다고 말하였다.

1년반만에 전미군 철퇴

이른씨가 기자회견에서 언명

(오하이오주 크리브랜드 12월30일 밤, 공동) 최근 하노이를 방문한 미실업가 샤이리스. 이른씨는 29일 기자회견을하고, "만일 닉슨대통령이 2개월간에 10만명을 철병하고, 1년반이내에 전미군을 철수하는데 동의한다면, 비에트남전쟁은 곧 종료될것이다" 라고 다음파같이 말하였다.

1. 나는 12월5일부터 12일까지의 하노이 방문중, 황.반.돈수상, 레.주안 노동당제1서기, 치.온. 친 국회상임 위원장등을 포함하는 북비에트남지도자와 회담하였다.

1. 이들 북비에트남지도자들간의 자기간에결친 회담의 결과, 나는 미국과 북비에트남 사상방이 받아들일수있는 방식을 찾아낼수가있다고 느꼈다.

1. 전쟁은 거의 하루저녁에 끝낼수가있으며, 그조건은 극히 만족할만한것일것이다. 나의 생각 으로는, 만일 닉슨대통령이 2개월이내에 미군 10만명의 철퇴와 1년반이내에 전미군의 철퇴에 동의 한다면, 이것으로 전쟁을 끝낼수가 있을것이다.

닉슨대통령, 세계 개혁 법안에 서명

(워싱턴 12월30일 밤, 에이피) 닉슨대통령은 30일, 대규모적인 세계개혁법안에 서명하는동시에, "내년도에 균형예산을 제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할 작정이다" 라고 경고, 다음 파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제3편에 계속)

(제2편으로부터 계속)

"국회는 불균형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은 조곤면과 나쁜 면이있다. 세계개혁은 전체로보아 조라. 그러나 예산과 생활비에기치는 영향은 나쁜것이다" "세계개혁안은 저축을 희생으로하고 지출에 비중을두고있다. 이것은 주택건설의 원조, 중소기업, 농업에의 대부, 주정부, 지방공공 단체사업에의 용자에 배당되는, 저축을 제한하는 것이 될것이다. 이결과 상승하는 생활비의 의 사들은 더 어려워질것이다" "나는 이것을 저출에 대해서보았는데, 이발안이 우리의 세계를 남세자에게 공평한것으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1보로보기때문에 서명하는것이다" "코헨재무차관은 "신제도가 실시 되면 오는 2년간은 세입이 늘것이나, 그후에는 적자재정이 된다" 라고 견유하고있다. 2년후에는 감수액이 높으며, 종국적으로는 25억불의 손실을볼것이다. "경제성장을 계산에 너은경우, 장래에걸쳐서의 손실액은 75억불에 도달한다" 라고 코헨차관이 견해를 피력하였다.

미군의 오기나와 기지사용에 협력

(워싱턴 12월29일 밤 공동) 시프다 주미일본대사는 26일, 워싱턴에서 인터뷰를하고 "오기나와 변환이 결정된결과, 일본정부와 국민은 70년대에는 체제에대해서 외향적인 자세를 취할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전방전과같이 군사적분야에서 다시 지도권을 발휘하는것이 아니고, 아시아에있어서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의 입정한 역할을 할려고 희망하고있는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시프다대사는 또 "미국이 아직 비에트남전쟁을 계속하고있기때문에, 미국은 군사기지를 계속 사용하지안으면안되며, 일본은 그에 협력할것이다" 라고 발언하였다.

동대사는 또 "오기나와변환결정에대한 영향은, 27일의 일본의 총선거에서 사또정부에대한 일본국민의 지지하는 형식으로 확실히 표시될것이다. 총선거의 결과는 자민당이 압도적승리를 거둘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였다.

21세기의 세계 도시화가 일층진행

(뉴욕 12월30일 밤, 공동) 세계의 도시화경향은 급우 점점 진행되고, 21세기초두에는 인류의 반수이상인 도시에서 생활하게 될것이다. 국립이 이번에 작성한 인구증가에관한 보고서는 이러한 예측을하고있다. 또 동보고서에의하면, 21세기초두의 세계인구는 60억인을 초과, 70년 (추정 35억인) 과 비교하면 거의 두배나 증가된다. 보고서에의하면, 선진국에서는 농촌인구는 이미 증 가드부터 감소로 전 환되고있는데, 도시인구는 1920년의 2억 6천만명으로부터 2000년에는 11억 6천만 명으로 격증, 한편 후진국에서도 도시인구가 급우 30년간에 20배에 가깝게 증가된다. 그결과 전체로서 도시의 인구증가가 농촌을 늘것이다. 또 인구 천 2백 50만인상의 "초대도시권"은 60년당시, 동경과 뉴욕 뿐이었는데, 80년에는 라성, 상해등이 이에 가담할것이라고보고있다.

70년의 경기 예측

경기 후퇴의 걱정도 있고

(뉴욕 12월29일 밤, 에이피) 1970년의 경기는 어떠할것인가— 전문가측에서는 이해를 파도기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정제는 느려지며, 70년대에걸쳐서의 경제안정의 기초가 건설될 해이다. 그러나 문제는 느려지는 정도이다. 워싱턴측에서는 소비와 생산의 조정을 노리고있는데, 그의 방향에향하는 경제정책에의한 느려지는 경향이 경기후퇴까지 일으킬 예측도있다고한다. 일부의 전문가가 "이미 후퇴는 시작되고있다." 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또다른사람들은 "후퇴는 잠시적인 모습이다. 급우에는 또 일어나지안을것으로본다" 라고보는 전문가도있다.

(제4편에 계속)



(제3면으로부터 계속)

인플레이션의 상승율은 69년이었는데, 그래도 소비자에게는 취직율이 높고, 임금은 상승, 주택 자금을 제외하고는 금융도 순조롭고, 지출절감이 강한 해였다. 그러나 후퇴의 그림자가 따라올 70년에는, 69년에 비해서 실업율은 증가되고, 저축해의 자세가 강해질것이 예상된다.

1. 취직...69년말의 민간노동인구예일서서의 실업율은 3.4%이었는데, 경기냉각으로 그이상으로 증가될 예상, 일부분식에서는 65년이래의 최고율인 4.5%를 예측하는 사람도있다.
2. 물가...소비자물가는 69년대에 5.5%의 가격상승을 표시하였다. 이경향은 더 계속되고, 70년에는 5%정도의 상승을 보일것이다.
3. 소득...국내국의 보고에의하면, 69년의 노동계약에따라서 70년에 실시되는 중간임금인상율은 1시간당 17.1원으로, 13년래의 최고이다. 그러나 70년에있서서의 계약개정에서는 임금상승율은 적어질것이다.
4. 세금...부가세는 10%부터 5%로 감세, 또 개인소득의 면제액도 6백달러부터 6백50달러 인상된다. 부동산세를 필두로 지방세와 판매세는 상승의 경향을 다룰것이다.
5. 저축...69년에는 생략수준유지때문에 저축이 적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저축액은 8억 달러, 작년예비해서 6할이 감소, 그러나 70년에는 주머니를 딱 쥐고, 저축율은 증가될것이다.
6. 이자...69년에는 금세기 시작이래의 최고율을 기록하였는데, 그의 경향은 더 계속될 모양이다
7. 주택...69년의 한정담보율은 7%로부터 8%로 상승, 70년상반기에도 너무 저하는 희망할수없다.
8. 자동차...자동차제조자들은 소비자의 구매욕은 감소되더라도, 그렇게 급격한 매상고 하락은 업슬것이라고보고있다. 그러나 일부의 소비자조사에서는 더 비관적인 결과가 나오고있다.

증대화하는 사회문제
70년대의 세계 공해와 청년의 반항

70년대는 평화의 시대이며, 모도성장의 시대이며, 과학과 기술의 진보에서 인류의 생활이 편리하게 되는 시대이다. 그러나 그러하고해서 인간의 생활이 안전하고, 인간이 다 행복하게 될수있다는 보증은없다. 도리어 세계의 사회학자, 경제학자는, 남어사이는 물질적범영속에서, 위협과 불만이 높아지고, 증대한 사회문제 - 문제의해서는 사회적 위기로 - 발전한다고 예상하고있다.

*생활환경의 악화...경제의 확대, 기술의 발전은 사회환경을 크게 바꾸고있다. 어느 나라서도 인구는 도시에 집중한다. 그결과, 어느 도시화, 파괴화가 진진 되고, 주택조건이 악화하고, 교통은 점점 혼잡해지고, 하수도.공원.학교등 도시생활에 불가결한 공공시설이 속히 건설되지안코, 주민의 불만이 높아질것이다. 또 도시외의 진전에따라서, 그의 가까히의 자원은 차차로 파괴되고, 삼림이나 오수, 하천은 전의 아름다움을 일로, 농약의 과도의 사용은 자연의미묘한 균형을 파괴하고, 대지는 황폐되어간다. 공업의 급속한 성장은 또 대기과 물 오염을 더 심하게한다. 이에대한 대책은 늦어지고, 건강에의 위협은 더 높아질것이다. 70년대후기에들어가면, 공해대책이 효과를내어 사정은 호전하기시작할는지모르나, 그때까지에 인간과 자연에 생긴 큰 손실은 회복할수없다. 이러한 생활환경의 악화를 어찌 방지하느냐가 70년대에 전세계공통의 문제가 될것이다.

* 기술진보와 폐해...하버드대학의 페른체우교수는 70년대의 공해문제에대해서 "기술진보 그자체를 고마워하는것은 정지하여야한다. 기술진보의 부작용을 진심으로 생각해야한다" 라고 경고하고있다. 기술이 얼마나 인류의 생활에 편리를 가져온다고해서, 공해의 폐해가있다면, 인류는 그의 편리를 포기하지안으면안된다.

(대주포에 계속 연재)

